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하느님의 선하신 영이 저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시편 143,10 참조)

1독서의 에즈라가 그 뿌리를 아론 집안에 두는 사제이면서 율법 학자, 곧 율법의 형태로 백성에게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탈출 24,12)을 일러주는 예언자(신명 18,18 참조)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직분이 모두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자와 사제의 뿌리 격인 모세(신명 34,10)와 아론(탈출 28,1)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불림 받아(탈출 4,14-16) 서로의 자리와 역할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예언자 모세는 사제들이 거행해야 할 속죄 예식(레위 4장)을 몸소 보여주었고(레위 8장, 특별히 8,34), 사제인 아론은 모세의 입(탈출 4,16), 곧 예언자(탈출 7,1-2)로서도 활동하며 모세 대신 그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탈출 7,9-10 등). 무엇보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는 모습(레위 9,23)은 두 직분이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합의 온전한 모습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요한 1,14)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예언자로 칭송받는 그분께선(마태 16,13-14와 병행구) 율법과 예언서, 곧 하느님 말씀을 완성하셨고(마태 5,17), 한편 죄를 용서해 주시려 많은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마태 26,28) 대사제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신다(히브 7,27-28). 예수님께선 십자가라는 제단에 들어갔다 나오시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강복하시는데(루카 24,50), 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눠 있던 것이 당신 안에서 온전히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듯하다.

이 결합은 그분을 기억하여 거행하는 미사, 곧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라는 두 축 안에서 재현된다. 그러나 단순히 재현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말씀 전례 안에서 말씀을 듣고 화답하는 가운데(마치 루카 2,46의 소년 예수님 모습처럼) 예수님의 예언직을, 그리고 성찬 전례 안에서 노력과 희생 등 자신을 상징하는 예물을 봉헌함으로 당신 자신을 예물과 제물로 내어놓으신(에페 5,2) 예수님의 사제직을 배우며, 더 나아가 세상에 파견되어 그 직무를 수행해나갈 것 또한 요청받는다. 말씀에 뿌리내리고 말씀께서 모범을 보이신 두 직무는 이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한다.

하나 더 기억할 점은 그 직무를 뒷받침해주는 힘, 곧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봉독하신 이사야서의 내용처럼, 그분께서는 성령의 힘을 지니고 계셨다. 이 성령께서 말씀이 세상에 자리 잡고 모습을 드러내시는 데(루카 1,35 참조), 그리고 말씀의 직무가 드러나야 할 자리로 이끄시는 데(루카 4,1) 도움을 주셨다. 제자들에게도 전달될 성령께서 말씀이 자리 잡는 데(요한 14,26; 16,13), 더 나아가 2독서에서 언급하는 은사들, 곧 말씀께서 보여주신 직무에서 우러나오는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1코린 12,11) 도움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말씀과 결합하여 그분의 직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이미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느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길 요청받는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시작되는 이번 주가 성령의 도움 아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한다.



김유태 비오 신부 | 유학(로마)

주일 진례

제 1 독 서	느헤 8,2-4; 5-6,8-10
화 답 송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제 2 독 서	1코린 12,12-30 또는 12,12-14,27
복 음	루카 1,1-4; 4,14-21

완월동본당 성인 유품 공경 지향미사



1월 7일 완월동성당에서는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특별방문미사가 봉헌되었다. 교구장 주교는 완월동본당 내 성인 유해에 대한 성인 유품 공경 지향미사를 거행하였으며, 완월동성당이 성인 순례지 성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본당 전 신자들은 성인 유해 인증을 위한 묵주기도를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151,540단을 봉헌하였다.

장재동본당 야외 십자가의 길, 안내판 축복식



장재동본당은 지난 2021년 12월 26일 성가정축일 교중미사 후, 야외 십자가의 길 14처와 안내판 축복식을 하였다. 십자가의 길 14처는 강춘희(오티리아) 작가와 많은 신자들의 봉헌으로 완성하게 되었으며, '장재동본당의 이야기' 안내판은 장재동성당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성당의 소개와 오랜 역사 안내를 위해 입구에 설치하게 되었다.

교구 신학생 동계연수



연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잠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신학생 동계연수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는 1월에 서품받은 새 사제들의 공동 집전 미사와 안수의 시간을 가지며, 후배 신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으로 신학생들의 성소를 굳건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관상(觀想, Contemplation)이란 무엇인가?

박재찬 안셀모 신부/ 본도 명상의 집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관상기도는 가르멜회 수녀님들 같은 관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아닌가요?
관상기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기도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을 한다. 첫째, 소리기도는 묵주기도와 같이 입으로 소리를 내어 바치는 다양한 기도를 말한다. 둘째, 묵상기도는 인간의 사고력, 상상력, 감정과 의욕 등을 사용하여 복음 말씀이나 영적 서적 등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성찰하고 새로운 결심에 이르는 기도이다. 셋째, 관상기도는 하느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도이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는 능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도이다.

그런데 관상기도와 관상은 다르다. 모든 기도의 형태는 관상의 은총을 받기 위한 도구이다. 관상은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상태를 말하며 관상기도는 특별히 이것을 지향하는 기도의 형태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관상기도는 관상 생활을 하는 이들의 고차원적인 기도이고 묵주기도는 일반 평신도들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필자도 수도원에 입회한 지 2년째 되던 청원자 시절 이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다. 수도원에는 매일 오전, 오후 30분씩 묵상이나 관상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나이 많은 지원자가 글썄 묵상시간에 묵상을 하지 않고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자가 되었으니 묵상 시간에는 묵상기도나 관상기도를 바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 지원자는 “그냥 나는 묵주기도가 좋아요”라고 단순하게 대답을 할 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말이었던 것 같다. 사실 묵주기도는 관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기도이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의 신비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관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기도의 형태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관상의 선물을 하느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관상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관상’(觀想, Contemplation)이란 단어는 한 국민들에게 ‘사람의 얼굴을 통해 운명을 예견’하는 단어, 관상(觀相)과 그 소리가 같아 혼동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관상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한자어 자체가 주는 특별한 숨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관(觀)은 ‘볼 견뎌’자에 ‘황새 관(觀)’이 더해져 그 의미는 ‘자세히 본다’는 뜻이다. 상(想)은 ‘서로 상(相)’과 ‘마음 심(心)’이 더해져 ‘생각, 사색, 그리움, 닮음’ 등의 뜻을 지닌다. 그래서 관(觀)과 상(想), 둘을 합치면, ‘서로 마음으로 자세히 바라본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기에 관상을 뜻하는 희랍어 θεωρία(theoria, 눈 혹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를 한자 觀想(관상)으로 묘사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 활동을 통한 기도인 묵상(默想, 잠잠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능동적인 기도라면,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의 관상은 수동적이고 하느님 중심적임을 잘 묘사하고 있다. 희랍어 θεωρία는 라틴어 Contemplatio(콘템플라시오)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 역시 관상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Contemplatio는 con-(함께)과 templum(성전)의 합성어이다. 즉,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함께 머무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1코린 3,16)라고 한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관상은 ‘하느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관상이란 용어의 의미에서도 드러나듯이, 관상은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함께 사는 것이다. 그분이 거하시는 내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나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관상적인 삶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길 바라며

그리스도의 성혈 흠송 수녀회

전례력 새해, 첫 주일에 본회는 두 개 사도직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동 분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문화동 분원은 성혈흠송자,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 여정의 다양하고 특별한 기억과 소회를 담고 있다. 축복식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한 지난 세월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다. 수도회 초창기부터 맺어진 주례 사제의 강론 말씀에 담긴 소회를 들으면서 초창기부터의 지난 기억을 소환할 수 있었고, 공사 책임을 맡아 애쓰신 건설회사 대표님의 공동체와의 체험과 감회를 들으며 주님 대전에 모여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 모두는 하느님 섭리로 맺어진 형제자매임을 서로 확인하게 하는 감동을 주었다.

문화동 분원에서는 하느님 뜻을 찾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 한다는 본회 핵심가치관을 살고자 2010년부터 ‘마산가톨릭상담영성센터’(치유와 성장이 있는 동행으로 가족상담, 심리상담, 대면상담, 전화상담)와 ‘다솜이네’(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자립센터)를 운영하며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 본회는 1977년, 미국워치타관구에서 마산교구에 진출했고, 1978년부터 성혈흠송자들은 문화동(前 창포동) 분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을 시작했다. 처음엔 한국지부의 본원으로 사용하였고, 한때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인 ‘빛누리집’으로 그리고 ‘다문화 여성 지원센터’로도 사용했었다.

45년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초창기 형태로 문화동 분원은 그렇게 유지되었다.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있노라면 많은 분들이, 심지어 잘 모르는 분들도 언제 이 공사를 마치게 되고 어떠한 용도로 쓰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셨다. 그 관심과 상황이 놀랍기도 하고 새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에 기분 좋았다. 한 예로 문화동 분원 건너편 원룸에 사시는 아주머니는 리모델링 현장 근처에서 자주 뵈었다. 어느 날은 그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내게 물으셨다. “여긴 이제 무엇으로 쓰게 되나요? 사람들이 여기가 수녀원이라는데, 수녀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수녀님들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아주머니는 여기가 수녀원이라는데, 평복을 착용하는 내가, 우리가 수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그 이웃 아주머니께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여기는 가톨릭 수녀들이 운영하는 상담소와 다문화 여성의 자립을 돕는 곳으로 계속 사용될 것이고, 여기 사는 수녀들은 모두 사복을 입는다 말해 줬다. 그제야 아주머니는 내 신원을 알아채시고 갑자기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어머니 수녀님이시군요! 수녀원이 그대로 여기 있게 되어 좋아요. 그리고 수녀님들이 좋은 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며 반색하셨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웃들은 우리가 가톨릭교회 수녀로서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한다고 지지해 주고 있다는 것에 고맙고 기뻐했다.

“너희는 하느님 손에 들린 특별한 도구로다. 너희 가운데 ‘주님의 종’이 나와야 한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체여야 한다. 너희가 하느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이다.”(이사 42,1) 우리는 축복식을 하며 다시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투신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느님사랑, 이웃사랑이 체현되고 마련되어지도록 필요한 은총을 성혈께 청하며 감사와 찬미를 모아 기도한다.

‘가톨릭마산(교구보)’ 1월 23일 자부터 매월 넷째 주에 ‘그리스도의 성혈 흠송 수녀회’의 원고가 게재됩니다.

새해 다짐

윤유경 세실리아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도서관에서 ‘멋진 지구인이 될 거야’라는 만화책을 빌려왔다. 지구 환경을 위한 실천에 대한 내용이 었다. 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니 아들은 우리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며 나오는 것마다 실천해 보자고 아우성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멋진 엄마처럼 ‘그렇까?’ 하며 맞장구를 쳐 주면서도, 속으로는 ‘융통성’ 없이 무조건 해보자는 어린 아들을 비웃고 있었다.

나도 지구 환경에 관해선 나름 관심이 많은 편이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지구에 해가 되는 행동 은 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도 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어린 아들을 비웃었던 그 ‘융통성’이라는 것에 나는 늘 걸려 넘어지곤 했다.

우리 집에는 여기저기에서 받아온 까맣고 하얀 봉지들이 차고 넘친다. 나는 차마 버리지 못해 작게 접어서 모아두곤 했는데, 장이 서는 날엔 한 번씩 그것들을 들고 간다.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에게 필 요하다면 드리기 위해서인데 그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래서 호박이며 대파를 한 단 사면서 슬 쩍 여쭙는다.

“혹시 비닐봉지 필요하세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대부분 흔쾌히 받는다. 새댁이 참 알뜰하네, 라는 칭찬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때는 무표정하게 그냥 두고 가라는 제스처만 취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나는 융통성이 라는 혼란에 빠진다.

‘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해, 말아?’

내 비닐을 챙겨가지고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내 비닐을 채 꺼내기도 전 에 먼저 비닐에 물건들을 톱 담아준다. 그럴 땐 또 융통성이 이리저리 비틀거 리며 춤을 춘다.

‘아, 다시 내 비닐에 담겠다고 말을 할까 말까? 유별나다고 생각할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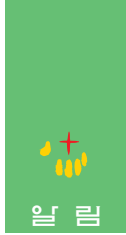
카페에서 커피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미처 머그컵에 달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종이컵에 담아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내 융통성은 재빠르게 발휘된다. 종이컵 한 장 더 쓴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

이러저러한 융통성으로 인해 우리 집에는 비닐봉지가 늘 침입하고 종이컵, 빨대, 플라스틱 컵과 용 기들이 상주하고 있다. 그것들을 받을 때면 기분이 묘해진다. 실패에 대한 쓴맛과 살아있는 내 융통성 에 대한 안도감이 적절히 섞여 웃지도 울지도 못한 상황이 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의 편리함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와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며 어 떤 생각을 하실까?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의 비명과 뱃속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 고래의 고통을 슬 퍼하지 않으실까? 내가 버린 쓰레기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모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사실 매번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건 융통성이 아니었다. 그건 융통성이라는 이름의 자기 합리화 였다. 새해는 다시 돌아왔고 나는 한 번 더 다짐해 본다. 조금만 더 불편해지자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 자고. 내 불편함과 용기가 어떤 생명에게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고.





▶ 교구/본당

전국 관리국장 회의

일시: 1월 25일(화) 15:00

장소: CBCK

전국 사무처장 회의(화상회의)

일시: 1월 26일(수) 10:30

신입, 복학 예정 신학생 신체검사

일시: 1월 25일(화) 10:00

2022년 신입, 복학 예정 신학생 피정

일시: 1월 25일(화)~26일(수)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위원회/기관/단체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코로나19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인성, 신앙)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 기 타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2월 9일(수)까지(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사전 녹화분)

▶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내용: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성경대학: 요한

복음1,2,3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기간: 22년 3월~12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7.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교구 법원은 신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6611·0631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업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가수 베드로 문의: 010-5055-0076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우리농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마산가톨릭농민회영농조합법인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사무국장 1명, 회계 1명, 배송 및 물류담당 1명
근무조건: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내부 규정에 따름) 후 채용 여부
근무지-창원시 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 291-28
접수: 1월 17일(월)~27일(목) 17:00까지, 전자우편(kcfm055@hanmail.net)
및 방문 접수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문의: 055·582·7010, 팩스-055·582·7009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면접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채용정보 참조

성심인애원 직원 채용 공고

모집: 생활재활교사
접수: 1월 23일(주일)까지
근무지역: 경남 산청
※ 자세한 내용은 산청성심원 홈페이지
(<http://www.sungsim1.or.kr/>) 참조 바랍니다.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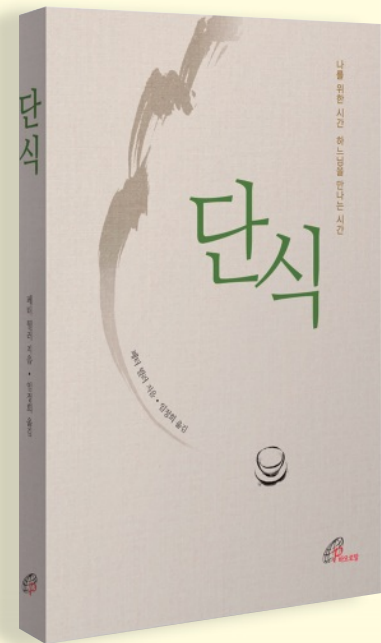
나를 위한 시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단식

단식을 위한 영적 동반자인 책으로 전인적 의미의 단식을 살피고, 교회 전통에 바탕을 둔 간헐적 단식을 소개한다. 아울러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구체적인 7주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목적임을 이 책에서는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교회의 전통에 바탕을 둔 간헐적 단식을 소개하며 몸과 정신, 마음을 통합하는 전인적 의미의 단식에 대해 살피고 있다. 그러기에 단식에 관한 의학 지식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다루지 않는다.

저자인 페터 뮐러는 단식 전문가로서 25년간 '건강한 이들을 위한 단식 주간'의 지도자로 일하면서, 단식 지도자를 양성하고,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의 순례 지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단식은 자기 시간을 갖고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한 변화의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초대한다. 이 책은 자기 삶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며 멈추고, 참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고 나를 위한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바른 식별을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페터 뮐러
- 옮긴이: 임정희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다(탈출 19-24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지 두 달 만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시나이 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시나이 산은 높이가 약 2,285 미터이며, 아랍 사람들은 이 산을 ‘모세의 산’(예벨 무사)이라 부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여장을 풀겠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를 떠나 시나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여정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느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그들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체험하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느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기는커녕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며 현실의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나이 산자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서는 계약을 제안하십니다. 이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관계를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관계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원의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제안하신 이 계약은 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의 조건을 준수한다면, 그들은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사제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탈출 19,5-6). 곧, 이 계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하느님의 것이 되며, 세상과 하느님을 연결해 줄 사제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고,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하느님께 속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하느님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원이 바뀌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삼 일간의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합니다. 하느님께서 임하실 산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도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산자락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삼 일째 되는 날 우렛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을 때 하느님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백성은 산기슭에 머물고 하느님께서서는 산봉우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이 계약의 조건인 십계명(탈출 20,1-17)과 계약법전(탈출 20,22-23,33)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약식이 거행되는데, 성경에는 이 계약식이 세 가지의 버전으로 소개됩니다. 탈출 24,1-2,9-11에 의하면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 일흔 명이 계약식에 참여하였고, 하느님의 신현을 목격한 후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써 계약을 비준하였습니다. 탈출 24,3-8에 의하면 모세와 백성들이 계약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기념 기둥 열두 개를 세운 후에 제사를 바치고, 짐승의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다음 모세가 계약의 책을 읽어주었고, 백성은 그 모든 것을 실행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24,8)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계약의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탈출 24,15-18에 의하면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갔고, 칠 일째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 사십 일간 그에게 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약식의 비준은 탈출 31,18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나이 계약으로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하실 것이며, 이렇게 하여 메마르고 황량한 땅인 시나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원이 되는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